

치 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백제불교의 본찰로서 마곡사의 ‘천불의 미소! 천년의 나들이!’ 천불 이운 대법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불사가 수많은 사대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진실로 운택해지는 풍요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증장하는 뚜렷한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종단 제6교구 본사인 천년고찰 마곡사는 물의 흐름과 산세가 산태극 수태극(山太極水太極)으로 난세에 전란이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사찰이다.

수많은 천년고찰 중 세계 문화유산 잠재 목록에 등재된 마곡사는 사세의 부침을 겪어왔지만 어려운 시기마다 각계각층의 돈독한 불심으로 그 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불법을 수호해 왔으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근본 도량으로서 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영산전은 조선 세조대왕이 만세불망지지(萬世不忘之地)라고 극찬한 곳입니다. 천하의 대혈 군왕대의 맥이 흐르는 영산전에는 과거 일곱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신력으로 입신양명을 위한 기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체 복원과 부처님의 개금불사로 단혀 있어 마곡사를 찾는 불자님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모든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전하는 봄소식과 더불어 영산전 천불 이운 대법회를 봉행하

게 됐습니다.

현 사회는 경쟁과 소외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꽃피운 사찰에서 많은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회향은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천불 이운은 마곡사만의 불사가 아닙니다. 종단과 한국 불교 불사의 대작이며, 불교계의 큰 성취입니다. 지역민은 물론 현 시대의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오늘의 이 한 걸음은 지역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든든한 반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종정 예하를 공경하며, 산중의 어른을 모시고 종단의 든든한 후원과 격려 속에서 진력을 다한 주지 스님의 원력과 공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융한 교구 화합 속에서 한마음으로 발원한 제6교구 사부대중과 더불어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지역 관공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영산전 천불 이운을 깊은 마음으로 거듭 봉축합니다.

불기 2558년(2014)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